

# 불신앙의 왕 사울과 복음의 왕 다윗 -복음으로 여는 사무엘상-

사무엘상 15:19-24, 빌립보서 2:5-11

정윤돈 목사님

계속해서 성경 66권을 순서대로 나누고 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이다. 예정된 것도 아닌데, 오늘 제목이 '불신앙의 왕 사울과 복음의 왕 다윗'이다. 오늘 송과구 구의원 후보께서 오셨는데,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앞으로 교회 안에도 많은 분야의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 서론 : 사무엘상의 내용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오지만,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하'라고 하기보다는 '다윗서'라고 하면 더 맞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부분에 나오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본처였지만 아이가 없었고, 후처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다. 그 브닌나가 계속 한나를 계속 격동시키는 것이다. 옆에서 많이 괴롭히니까, 사무엘상 1:6에,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될 정도였다. 아마도, '형님? 형님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했을 수도 있다. 뒤집어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했다가 응답을 받는다. 그런데 뒤에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물이 나온다.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이다. 다윗이 전쟁을 하고 승리해서 오니까 하필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다. '저놈은 일개 장군이고 나는 왕인데.' 우리 같으면, "저렇게 좋은 부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텐데, 사울은 시기질투에 빠져 주목하게 된다. 그때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한나는 격분했지만 성정으로 갔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한나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말한다.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해요? 술 취했어요? 술주정은 다른 데 가서 해야죠." 영안 어두운 엘리가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에게 내가 그랬으면 한 10년은 빠지지 않았겠는가? (웃음) 그런데 한나가 그러지 않고 자기의 사정을 엘리에게 말한 것이다. 그랬더니 영력이 부족했던 엘리조차도 감동을 받는다.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시고 자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목회자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고 회개할 정도가 되면 된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다. 이번에 제주 캠프도 30명이나 자원해서 참여하지 않나.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에 담겨 있는 것이다.

엄청나게 키가 크고 잘 생긴 사울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는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던 다윗은 왜 좋은 왕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되었는가. 이것을 오늘 나누어야 되겠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대단한 인물이 어처구니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인간은 다 연약하다. 그래서 복음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울이 시기, 질투를 할 때 사탄이 확 역사했다. 자기 정신이 아니게 된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사탄이 정사와 권세 속에 임한다고 했다. 인류 역사를 보라. 그렇게 놀라운 지도자들이 얼마나 나쁜 것을 많이 하는가.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 뿐이다. 거기에 흑암 세력이 임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몰고 가니까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울부, 함성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 뿐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탄, 마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 운명, 사주팔자, 제앙을 쥐고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 뿐이다. 내 친구가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인데, 차를 샀다고 고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고사 같은 것을 지내느냐 했더니, 지금까지 고사를 안 지내서 두 번이나 사고가 났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돼지머릿고기라도 언어먹을까 해서 가 봤더니, A4용지에 돼지머리를 프린트해서 절하고 있더라. (웃음)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어도 계속 사고가 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명배대거리가 필요 없다. 명주실도 부족도 필요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자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 한 지도자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알게 된다. 나는 모든 지도자들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나라의 실제 역사책 중에서는 천 년 넘은 책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3천 년 전에 기록되었다. 중국도 2500년 전의 기록은 없다. 성경이 기준 되어야 한다. 지금 세상은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3천 년 전 사람이다. 3천 년 전 한반도에는 뭐가 있었는가. 아무런 기록이 없다. 아브라함은 4천 년 전 사람이다. 중국에서 4천 년 전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당연한 것이다. 노아의 방주 이후 인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3천 년 전 왕조 이야기가 사무엘상하인데, 오늘 우리의 이야기처럼 읽어도 적용이 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한다.

## 1. 사울의 잘못된 불신앙의 모습

(1) 사울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노획물을 다 없애고 다 죽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말씀을 어기고 살찌고 좋은 것을 남겨 두었다. 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얻은 정당한 전리품을 진멸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것이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나의 명예인가, 백성들을 위함인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인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가. 아니면 나의 명예를 위함인가. 복지를 하는 것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함인가, 아니면 정말 생명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함인가. 교육을 하고 교사를 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후대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저울질해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신 것이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왜 그런가? 그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선순위가 있지 않다. 다른 데서 잘 하고 부모님에게는 불효하면 순서가 틀렸지 않다. 효도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말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천륜이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야 온전한 축복이 온다. 안 그러면 사탄이 역사한다. 불행이 온다. 자녀가 무너진다. 인간관계가 막살난다. 여러분, 자녀보다 하나님 중심이 되라. 그러면 자녀가 복을 받는다. 내 교회, 내 목회가 아니다.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전도가 되는 것이다. 의사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병을 잘 고치면 돈은 따라온다. 사무엘상 15:9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사울과 백성이 각각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쓸데없는 것을 진멸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을 가치있게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사무엘상 15:11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후회했다고 하신다. 강조를 한 것이다. 백성들이 정치적 짝은 것을 후회하게 되면 되겠는가. 사무엘은 직접 말한다. 사무엘상 15:19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돈 욕심, 이권에 급급하다. 오로지 돈만, 이권만 생각한다. 권력만 생각한다. 그래서 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울왕은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음과 같이 변명한다. 사무엘상 15:20-21에, "나는 실로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핑계를 백성에게 댈다. 왜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했을 텐데 말이다.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 "하나님, 제게 뭘 주시면 헌당하고 헌금하겠습니다." 목적이 정말 헌금인가, 부자 되는 것인가. 그런 약속을 하지 마라. 작은 것이라도 직접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예전에 청년 두 사람이 이야기했다. "전도사님, 저희가 성공하면, 나중에 전도사님이 목회하실 때 마음껏 다니시도록 비행기를 사 드릴게요!" 비행기는 고사하고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신경쓰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생 60억 원 정도는 헌금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업을 벌였다. 사업이 너무 망해서 내가 엮으니까 가서 팔아주고 왔다. (웃음) 동기가 자기의 성공이지 않은가? 부자 되는 것 아닌가? 백지수표를 남발하지 마라. 우선순위를 찾아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참된 헌신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변명에 대해 사무엘이 한 말이다. 사무엘상 15:22-23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시니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邪神)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한다.

(2) 사울왕은 악령이 임할 정도로,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다윗을 시기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여인들은 뒤붙이면서 말했다.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누가 작사, 작곡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울왕의 귀에까지 들렸다. 다윗이 방탄소년단처럼 된 것이다. (웃음) 여자들이 문제다. 아이들이 되었다. 여기에 다 무너진다. 연예인들은 귀신 보고 있고 힘들어하고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데 말이다.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 아이들 연습생 한 사람과 이야기해 봤다.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한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환호한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뭐라고 하는가? 사무엘상 18:8에, 불쾌하고 심히 노했던 것이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무엘상 18:9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사울은 질투심으로 인해 나라에 가장 필요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다. '전쟁에 저도 좋다. 다윗은 죽여야 한다.' 얼마나 어리석고 독한 마음인가.

(3) 사울은 이후에도 다윗을 쫓아다닌다. 멸망시키겠다, 죽이겠다 하는 마음이 과연 사탄의 역사이겠는가, 성령의 역사이겠는가.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는가? 흑암 세력이다. 우리는 빛을 가지고 흑암을 몰아내고

